KIA 치열한 좌완 경쟁 김유신 '스피드' 낸다

"1군에서의 경험 큰 동기부여 내년에는 주축 선수 되겠다"

김유신

치열해진 좌완 경쟁을 위해 KIA 타이거즈 김유신이 '스피드'를 낸다.

KIA는 그동안 좌완 가뭄에 시달렸지만 올 시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두 외국인 투수가 모두 왼손으로 공을 던졌고, 양현종과 이의리까지 선발진에만 4명의 좌완이 포진했다.

불펜에서는 이준영이 올 시즌에도 듬직하게 역할을 했고, 여기에 상무에서 전역하고 온 김기훈도 5강 싸움에 힘을 보태면서 KIA 좌완층이 두터워졌다.

제주도 마무리캠프에서도 '좌완'이 키워드다.

KIA가 2023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호명한 좌완 윤영철이 관리 차원에서 광주에서 훈련을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좌완 김세일과 곽도규 두 신인 선수가 제주도에서 프로 첫 캠프를 치르고 있다.

김유신, 강병우, 유지성도 좌완 그룹에 속하면서 내년 시즌 뜨거운 왼손 경쟁이 예고됐다.

제주도 캠프에서 가장 1군 경험이 많은 투수는 김유신이다.

팔꿈치 뼛조각 수술 여파로 올 시즌 출발은 늦었지만 10경기에 나와 1군 기록을 더했다.

9월 7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3회 1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한승혁에 이어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4이닝 역투를 선보이며 승리투수도 됐다.

김유신은 "마지막쯤에 1군에 올라왔지만 팀에 도움이 돼서 기분이 좋았다.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웠던 것 같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1군에서의 경험과 치열해진 경쟁은 김유신에게 큰 동기부여다.

김유신은 "1군의 의미를 아니까 또 위기감도 느끼고 있어서 마무리캠프에서 더 간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캠프 분위기는 좋다. 다들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있다. 서로 격려하고, 힘내면서 분위기 좋게 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캠프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체력이다.

김유신은 "올해 막판에 올라와서 그런지 체력적인 부분에 고민이 있었다. 이번 캠프에서 체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훈련이 쉽지 않은데 버텨내야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다. 몸이 불은 것 같아서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피드'는 김유신에게 주어진 숙제다.

김유신은 "좌완 중에서 스피드가 가장 느리다. 공 스피드를 더 올리고 싶어서 강하게 던지고 있다"며 "순발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고, 웨이트에서도 파워 있게 한 번에 힘을 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러닝도 트레이닝 코치님들이 잘 조절해주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스피드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장점인 제구력을 살려 경쟁력을 더할 계획이다.

김유신은 "지금보다 더 정교한 변화구로 어필하겠다. 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도록 중점 연마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막판에 올라오는 선수가 아니라 타이거즈 김유신이 주축 선수가 되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마무리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철벽' 김민재, 나폴리 10연승 이끌어

엠폴리에 2-0 승리 풀타임 소화 무실점 수비

김민재

한국 축구대표팀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소속팀 나폴리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10연승을 이끌었다. 나폴리의 리그 14경기 연속 무패(12승 2무)다.

나폴리는 9일 열린 2022-2023 세리에A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엠폴리를 2-0으로 꺾었다.

이날 승리로 나폴리는 개막 14경기(12승 2무)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최근 리그 10연승도 달렸다. 승점 38을 쌓은 선두 나폴리는 2위에 자리한 '디펜딩 챔피언' AC밀란(승점 30)과 승점 격차를 8로 벌였다.

센터백으로 나폴리 포백 라인의 중심에 선 김민재는 풀타임을 뛰며 무실점을 이끌었다.

전반 26분 엠폴리의 역습 상황 중 빠른 발로 공격수와 각도를 차분히 줄여내 패스 실수를 유도하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

4분 후 상대 공격수가 수비 뒷공간을 노려 침투했지만, 부지런히 달린 김민재가 빠른 발로 따라잡으며 또 한 번 역습을 무산시켰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나폴리에서는 후반 들어 스트라이커 빅터 오시멘과 함께 미드필더 탕기 은돔벨레가 슈팅을 퍼부으며 공세를 폈다.

결국 오시멘이 후반 22분 상대 페널티지역에서 패스를 받은 과정에서 몸싸움에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이르빙 로사노가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해 나폴리가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43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가 오른 측면에서 넘어온 로사노의 크로스를 문전에서 마무리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걷어내기 2회를 기록했고, 상대 슈팅도 1회 저지했다. 83회 패스를 시도해 88%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빌드업의 기점 역할도 충실히 해냈다.

/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을 준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9일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타르 월드컵 대비 마지막 평가전

벤투호, 내일 아이슬란드전 12일에는 최종 엔트리 발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평가전을 준비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마침내 전원 소집을 완료했으나 모두가 함께 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9일에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오후 훈련에 나섰다.

소속팀 일정으로 합류하지 못하던 손준호(산둥 타이산)가 8일 저녁 입소한 뒤 이날 훈련부터 참가하며 마침내 이번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린 27명이 모두 파주 NFC에 집결했다.

다만 팀 훈련엔 두 명이 빠진 25명만 참가했다.

오른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겪는 왼쪽 풀백 김진수(전북)가 여전히 팀 훈련을 소화하지 않고 있고, 미드필더 고승범(김천)도 개별 회복 훈련만 진행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김진수는 많이 회복됐으나 아직 팀과 함께 운동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고승범은 왼쪽 종아리 근육 경직이 조금 있는데, 부상이라고 하긴 어려우나 상태가 악화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팀 훈련에선 제외됐다"고 전했다.

다른 선수들은 초반 15분만 미디어에 공개한 가운데 훈련을 이어갔다. 필드 플레이어들은 조를 나눠 몸풀기부터 진행했고, 김승규(알샤바브) 등 골키퍼 4명은 다른 훈련장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대표팀은 10일엔 오전에 파주에서 마지막 훈련을 진행한 뒤 11일 오후 8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표(12일) 전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아이슬란드는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8강에 올라 북유럽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다. 다만 현재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2위로 한국(28위)보다 30계단 이상 낮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을 찾는 아이슬란드는 춘추제인 자국 리그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려 전력이 평소보다 약하다.

벤투호도 같은 이유로 국내파 선수 위주로 팀을 구성한 터다. 따라서 승부보다는 '선수 테스트'에 평가전의 초점이 맞춰진다.

자원이 풍부한 공격 2선, 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는 오른쪽 풀백, 김민재의 확실한 짝을 찾지 못한 센터백에서 특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격 2선은 권창훈(김천 상무)과 나상호(서울)가 경쟁에서 한발 앞선 가운데 엄원상(울산), 송민규(전북), 양현준(강원) 등이 '뒤집기'에 도전하는 형국이다.

오른쪽 풀백은 김태환(울산), 김문환(전북), 윤종규(서울)가 경쟁하는데, 누가 우위에 있다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센터백 자리에서는 베테랑 김영권(울산)과 권경원(감바 오사카)이 유리한 위치에 있고 조유민(대전하나시티즌), 박지수(김천 상무) 등이 뒤를 쫓는 모양새다.

이번에 새로 선발된 선수 중에서는 스트라이커 오현규(수원)에게 시선이 쏠린다.

벤투 감독은 아이슬란드전에서 국내파 선수 선발에 대한 저울질을 끝내고, 12일 유럽파 선수들을 포함한 카타르 월드컵 최종명단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EA 스포츠 "한국,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우승은 아르헨티나"

한국이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렉트로닉 아츠(EA) 스포츠가 9일 발표한 올해 카타르 월드컵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별리그를 통과, 16강에 오르지만 16강에서 '삼바 축구' 브라질에 0-3으로 져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전망은 국내 축구 팬들에게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통산 두 번째로 '원정 16강'을 달성한다는 것은 '예상'이더라도 기분 좋은 내용이다.

EA스포츠는 4강 후보로 한국과 같은 조인 포르투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로 꼽았고 결승에서 남미 국가들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만나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EA 스포츠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부터 최근 세 차례 월드컵 우승국 전망을 모두 맞췄다고 자랑했다.

2010년 스페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의 우승을 다 적중했다는 것이다.

다만 준우승은 2010년부터 브라질, 브라질, 독일로 예상했지만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로 모두 틀렸다.

이번 대회에서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8골을 넣어 득점 1위에 오르고 대회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된다는 것이 EA 스포츠의 예상이다.

손흥민(토트넘)은 2골인 득점 상위 15위 내에 들지 못했다.

이재성(마인츠)이 도움 2개를 기록해 어시스트 부문 공동 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어시스트 1위에는 나란히 3개의 도움을 배달한 카림 벤제마(프랑스)와 피오트르 지엘린스키(폴란드), 베르나르두 실바(포르투갈)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노동일 광주FC 대표 "성적·흥행·후원 확보에 최선"

노동일 대표

광주FC가 새로운 대표체제로 운영된다.

광주는 9일 광주축구전용구장 시청각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노동일 베수비우스 S&P 대표를 6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노동일 신임 대표이사는 1982년 베수비우스S&P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면, 2019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장도 맡고 있다.

평소 기부와 사회공익사업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왔고 기업계에서 다양한 친분을 맺고 있어 광주의 기업 후원 유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주는 정원주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사무처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단의 경영 혁신을 위한 대표이사 선임 요구가 이어졌고, 강기정 구단주의 삼고초려 끝에 노동일 대표이사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노동일 신임 대표이사는 "2023시즌 K리그1으로 복귀하는 중요한 시점에 대표이사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성적과 흥행, 후원 확보 등 구단을 위해 궂은일도 주저하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